

의사가 되기까지의 의사상



소진탁

누구나가 한 직업을 갖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연유가 있을 것이다. 허구 많은 직종 가운데 내가 왜 의사직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별로 심각할건 아니겠지만 기억을 더듬어 본다.

내가 어렸을 때 공포의 대상자가 우두쟁이였는데 우두쟁이란 우두(牛痘)를 놓는 의사를 그 정도로 불렀을 뿐이다. 왜 우두쟁이가 무서웠는가 하면 첫째 긴 칼을 허리에 찬 순사(巡査) 때문이요, 둘째가 괴상하게 생긴 그 우두칼(種痘針) 때문이었다. 우두쟁이 오는 날은 구장(區長)이 징(鉦)을 울렸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순사가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을 찾아다녔다. 사실은 찾아다니게 아니라 억지로 끌고 갔다.

그 당시의 순사는 그 생김만 보아도 웬일인지 무서웠다. 어른들도 매한가지였던 것 같다. 아낙네는 아이들을 데리고 구장택으로 가기보다는 동네 고삿을 이리저리 도망쳐다니기 일수였다. 나도 할머니 등에 업혀 순사의 눈을 피하느라 울타리 뒤에 숨을 죽이면서 숨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결국은 이장집까지 끌려가기 마련이었는데 사랑 마루에 앉아 있는 우두쟁이는 딱딱한 인상의 순사와는 달리 하얀 까운을 입고 있었다. 이마가 반쯤 벗겨지고 지금 생각하면 로이드안경을 쓴 펍 인자스럽게 보이는 중년신사였다. 그 옆에는 하얀 까운의 신여성이 알콜숨으로 건어 올린 팔을 닦아 주고 있었으니 즉 간호원이었다. 천사와 같이 느껴졌다.

오들오들 떨던 두려움은 이 두분들의 온화한 모습으로 이내 풀리고 말았다. 「우리 손자는 겁이 많으니 조금만 놓아 주세요요」라고 할머니께서 당부하시면 그 우두쟁이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이어 소독된 윗팔피부를 열십자로 간단히 긁었다.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 우두쟁이에게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두쟁이를 의사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다.

그 우두쟁이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이어
 소독된 윗팔피부를 열심자로 간단히 긁었다.
 생각보다는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그
 우두쟁이에게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우두쟁이를 의사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귀동냥으로 알게 되었다.

국민학교시절 어머니께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耶蘇病院에 계셨으므로
 방학때면 으레 어머니를 찾아 갔다. 미국인 원장 의사 밑에 한국인 의사
 한분 계셨다. 양인 의사는 어머니께서 인사를 시켜주셨으나 웬일인지 그
 코큰 아저씨가 존경은 가면서도 무서워서 일부러 피해 다녔다. 한국인
 洪의사는 환갑을 바라보는 썩 인자한 할아버지였다. 코잔등이에 걸쳐
 있는 금테안경 너머로 나만 보시면 언제나 빙긋 웃어 주셨다. 보통때는
 한복바지에 까운을 걸쳤으니 내 친어버이와 같은 느낌도 들었다.

환자들은 양인 의사보다 홍의사 진찰실에 더 많이 몰려들었다. 그의
 손만 다면 무슨 병이던 그대로 낫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전라도와 충남
 일부에선 홍의사를 神醫처럼 받들었다. 나도 이 다음에 저런 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다. 좀 자라매 할아버지와 한방에서
 기거했다. 한번은 외지를 돌아다니다 5년만에 돌아오신 큰아버지께서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이불 속에서 들었다. 「택이놈도 에비를 따라
 判官이 돼야지」 하시는 할아버지 말씀에 「의사가 더 낫습니다」라고
 큰아버지께서 딱 의견을 내셨다.

조부님은 아직도 官尊사상이 짙어서 자손들이 관계에 진출하는 것을
 큰 소망으로 생각하셨다. 집을 떠나 반 방랑생활을 하는 동안에
 백부님께서는 의사라는 직업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적합함을 느끼셨던
 모양이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변호사가 되었고 숙부님께서 고등고시
 시험중이었으니 나로서는 그게 그리 대단할 정도로 훌륭해 보이지는
 않았다. 의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이윽고 세월이 지나 중학교 상급반이 되었다. 그해 아버지를 따라
 동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에서 한 여름을 지냈다. 어떤 친지의 별장에
 기거했는데 아침 저녁 바닷물에 한 두번 들어갈 뿐 온종일 시험준비서와

우두쟁이·홍의사 그리고 해수욕장에서의 이름모를 선배의사들에게서 풍기던 의사상을 내 자신에게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탓인지 다만 각박하고 타산적(打算的)이며 소심해진 자신만이 거울에 비칠 뿐이다.

씨름하였던 때였다. 같은 해변 가에서 예술인·문인·관리·실업가·의사 등 여러 사람들이 수일 또는 월여를 같이 지내게 되었다. 천막 차방(茶房)이 있었는데 문화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좀 희귀가치가 있었던 커피를 마시며 음악감상도 하곤 하였다. 가끔 어른들 틈에 끼어 그들 대화를 엿들 수 있었다. 아직 미숙한 나이였지만 누가 제일 젠틀맨인가를 점쳐 보았다. 대개는 해수욕복만 걸쳤기 때문에 그들의 오고가는 말과 행동이 나의 관심사였는데 꼬집어 지적은 못하지만 의사라는 사람들만이 우연인지 先入觀念인지는 모르나 언행에 존경이 가고 또 믿음직스러웠다.

달이 밝은 어느날 바닷가 소나무에 불어닥치는 바람 소리가 파도소리와 어울려 어느모로 보나 감상적인 기분을 돋구었는데 마침 마주게신 아버님께서 돌연 법학·의학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고 말씀하시기에 은근히 대를 이어 줄 법학도가 될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알았지만 「의학을 지망하겠습니다」고 대답하였다.

다음해 나는 원하는 의학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의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지금까지 20여년 지나 보았지만 별로 신통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우두쟁이·홍의사 그리고 해수욕장에서의 이름모를 선배의사들에게서 풍기던 의사상을 내 자신에서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 모습은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 세상탓인지 다만 각박하고 타산적(打算的)이며 소심해진 자신만이 거울에 비칠 뿐이다. 이 세대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눈에 비치는 의사상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나 그 대답을 듣기 전 두려운 생각부터 난다. 72

〈필자=원광의대 교수〉

〈이번호부터「의사의 창」필자가 바뀝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박희웅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